

현대·기아車, 쌍용車

# 글로벌 시장 공략 CEO들 광폭행보

현대·기아차와 쌍용자동차가 올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해외 판매량은 668만7128대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신흥시장 공략에 성공한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은 미국 시장 점검에 나섰다. 쌍용차는 현대차 출신 '해외 영업통' 예병태 부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

반면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는 노사간 갈등으로 내수는 물론 수출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 ◆국내 車 업체 해외 시장 공략 박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12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올해 들어 첫 해외 현장 행보다. 정 수석부회장은 12일 김포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로 향했다. 업계에서는 정 수석부회장이 실리콘밸리의 미래차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매년 정 수석부회장은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지상 최대의 가전쇼인 CES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글로벌비즈니스센(GBC) 건립, 수소전기차 로드맵 발표, 광주형 일자리사업 등 국내 현안

정의선 수석부회장, 美 출장행

현대·기아車, 美 판매량 호조

예병태 사장, 수출 제고에 총력 쌍용車, 중동·아프리카 등 진출

에 집중하기 위해 CES에 불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국 현지 생산 및 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막바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9월 승진 이후 곧바로 미국 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를 접촉해 관세 부과 이슈와 관련 호혜적 조치를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미국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이유는 현대차그룹 실적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 4.9%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를 오는 4~5월께 북미시장에서 양산할 예정이며 기아차도 상반기 중으로 텔루라이드를 선보인다.

쌍용차는 올해 현대차 '영업통' 출신인 예병태 사장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 제고



2019년도 현대자동차그룹 시무식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총괄부회장.

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모회사인 인도 마힌드라와 함께 연내 미국에 진출할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지난해 하반기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중남미 시장에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후주에 직영 해외판매법인 설립하며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섰다. 멜버른, 시드니, 중소도시 등 3단계의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케팅과 서비스까지 모두 책임지는 사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수출시장을 확대 진출할 계획이다.

다만 쌍용차의 미국 진출 방식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현재로서는 마힌드라를 등에 업고 미국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지엠·르노삼성

# 내수부진·노사갈등 해외 수출까지 몸살

한국지엠, 지난해 조단위 손실 해외 철수로 물량 감소 불가피 르노삼성, 신차 부재·내수 최악 파업 지속엔 신뢰 바닥으로 '뚝'

### ◆르노삼성·한국지엠 긴 '타일' 예상

내수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은 올해 해외 판매 전략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해 조 단위 손실을 기록한 한국지엠은 올해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한국지엠의 수출 비중은 북미와 유럽이 각각 53%, 31%인데, 유럽사업을 PSA에 매각하면서 올해부터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M이 해외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국지엠의 수출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트랙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지엠이 연구개발을 주도한 트랙스는 현재 부평공장에서 생산돼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지엠 전체 수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펜 모카, 부익 앙코르라는 이름으로도 판매된다.

한국지엠은 수출보다 내수 시장을 살리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해 내수판매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내수 시장 회

복이 관건으로 떠오른 만큼 2019년 대형 SUV 트레버스와 픽업SUV 콜로라도의 출시로 내수시장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을 신경쓸 겨를이 없다. 특히 내수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갈등과 함께 신차 부재로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기에 르노삼성의 전체 생산 물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닛산 로고도 올해 9월 생산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르노삼성은 GM 군산 공장을 재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로스 모저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은 설 명절 전 르노삼성 임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높은 성과를 이뤘지만 (현재처럼) 파업이 지속되면 공장 가동시간이 줄고 쌓아온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르노삼성과 로고 후속 차량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공장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까지 3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에 성공해왔던 르노삼성은 2018년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무려 8개월여 동안 28차례에 달하는 부분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쏘렌토 260만원 할인... '통큰' 이벤트

기아車 '익스체인지 리워드' 프로모션

기아자동차가 쏘렌토 구매시 최대 26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통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아차가 2020년형 쏘렌토 출시를 맞아 기존 RV 고객들에게 ▲차량가격 30만원 할인 및 30만원 캐시백 지급 ▲K-스타일케어 무상 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익스체인지 리워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2월 동안 운영되는 이번 '익스체인지 리워드' 프로그램은 브랜드에 상관 없이 RV 차량을 보유 중인 고객이 기아 레드멤버 전용카드를 이용해 2월 중 쏘렌토를 출고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재 RV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기아 레드멤버 전용카드를 세

이브오토 프로그램을 이용, 차량가격 중 2000만원 이상을 일시불 결제해 쏘렌토(구형모델 포함)를 구매하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RV 차량을 매각(이전, 말소)하면 차량가격 30만원 즉시 할인 및 30만원 캐시백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 익스체인지 리워드 프로그램 이용 고객이 기아차의 신차케어 프로그램인 'K-스타일케어'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시 차감됐던 포인트를 4월 중 전액 재적립해준다.

'K-스타일케어' 서비스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출고일 기준)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프로그램으로, 출고 후 1년 이내 발생한 외관 손상에 한해 최대 3회까지 ▲경형 100만원 ▲소형 150만원 ▲중대형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팰리세이드·G70, 'iF 디자인상' 휩쓸어

외관 디자인·인간공학설계 호평 씨드 스포츠웨어 등도 본상 '경경사'

현대·기아자동차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12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와 콘셉트카 르 필 루즈가 '2019 iF 디자인상' 제품·수송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국내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된 신개념 플래그십 대형 SUV로 디자인에서부터 공간 활용성, 주행성능, 안전편의 사양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상품성을 갖췄다.

아울러 풍부한 볼륨감과 입체적인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을 바탕으로 강인한 이미지와 대담한 디자인을 통해 당당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만족하는 외관을 완성 했으며 인간공학설계와 고급 소재로 실내 감성품질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팰리세이드는 사전계약 첫 날 3468대가 계약된 데 이어 사전계약기간 동안 총 2만 506대가 계약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기아차는 프로씨드와 씨드 해치백, 씨

드 스포츠웨어가 각각 수송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경경을 맞았다. 프로씨드는 유럽 시장 전략 차종이다. 슈팅레이크보다 타입의 5도어 모델로 스포티함을 더 과감한 디자인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콘셉트카 에센시아와 스포츠 세단 G70

및 서울 2017 출시 기획 행사가 본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기획 행사는 G70이 시장에 나온 2017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안드라 테이와 그렌 스테파니 등 유명 가수와 관객 1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강사: 김민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